

“목자이신 예수님” (막6:30~44)

• 찬송: 301장, 559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막6:34)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34절).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허기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자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여, 영혼을 자라게 합시다.

둘째,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34절).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돌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므로 우리도 받은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이해로 대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추석이 됩시다.

셋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41~42절).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삶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면, 사랑과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긍휼을 체험하며,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긍휼을 나누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히12:1~13).

• 찬송: 438장, 543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12:2)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법을 함께 나눠 봅시다.

첫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2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잘못된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인내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의 본이 되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6,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고난을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가 옵니다(11절).

고난의 순간은 괴롭지만, 인내로 그 시간을 지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합시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추석 가정예배

◆ 예배일시 : 2025년 10월 6일 (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제일교회

담임목사 전 종 남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4길 8 (☎02-2646-0781)